

곳곳 '쓰레기 천지'...20리터 종량제 봉투 순식간에 '가득'

‘지구의 날’ 광주기후비상협 회원들과 걸으며 쓰레기 줍는 ‘줍깅’ 해보니

화단에 페트병·일회용 커피잔 등 수북...종량제봉투 10개 20분만에 동나
광주 작년 생활쓰레기 하루 468t...코로나 여파 재활용품도 하루 98t 달해
환경단체 기후 위기 극복 퍼포먼스도...지구 살리기 작은 실천 공감 필요

“이렇게 빨리 종량제 봉투가 가득 찰 줄 몰랐어 요. 봉투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주변에서 ‘줍깅’에 나선 광주시 기후비상협의회 회원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드러냈다.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의 합성어로 일정 장소를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애초 스웨덴에서 이삭을 줍다(plocka up)와 조깅(jogging)을 합쳐 만든 ‘플로깅’이라는 말로 시작됐다가 북유럽,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했고 국내에는 ‘줍깅’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한 손에는 종량제 봉투, 다른 한 손에는 집게를 들고 5·18민주광장을 출발해 줍깅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쓰레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담배꽂초, 일회용 커피잔, 비닐봉투 등 길거리 에 나뒹굴고 있는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은 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출발한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문화전당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한 회원이 큰 소리를 질렀다.
“좀 도와주세요. 안보이는 곳에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렸네요.”
회원이 가르키는 곳을 보니 문화전당 버스정류장



22일 오후 '줍깅'에 나선 광주시 기후비상협의회 회원들이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 역 버스정류장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있다.

옆 화단에 온갖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겉으로 대충 봤을 때 잘 가워진 화단으로 보였는데, 한 발 더 들여다보니 다양한 쓰레기가 숨겨진 공간이었다.

쓰레기를 담은 검정색 비닐봉지, 고장난 우산, 페트병, 담배갑, 먹다 버린 음식물쓰레기 등 ‘버려진 양심’들로 가득했다.

회원들의 20 l 크기의 종량제봉투는 줍깅 20여 분 만에 가득찼다.

회원들이 동명동과 구시청 일대를 돌며 수거한 쓰레기를 모아보니 20 l 종량제 봉투 10개, 담배꽂초가 담긴 페트병도 20개나 나왔다.

이날 ‘줍깅’ 행사는 ‘제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진행됐다.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세계 환경 운동 활동가들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4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지구의 날 행사위원회’도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행사를 기획했다.

그만큼 매일 버려지고 쌓여만 가는 쓰레기는 엄청난다.

당장, 광주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만 468 t(중정차)에 이른다. 연간 17만 820 t에 달하는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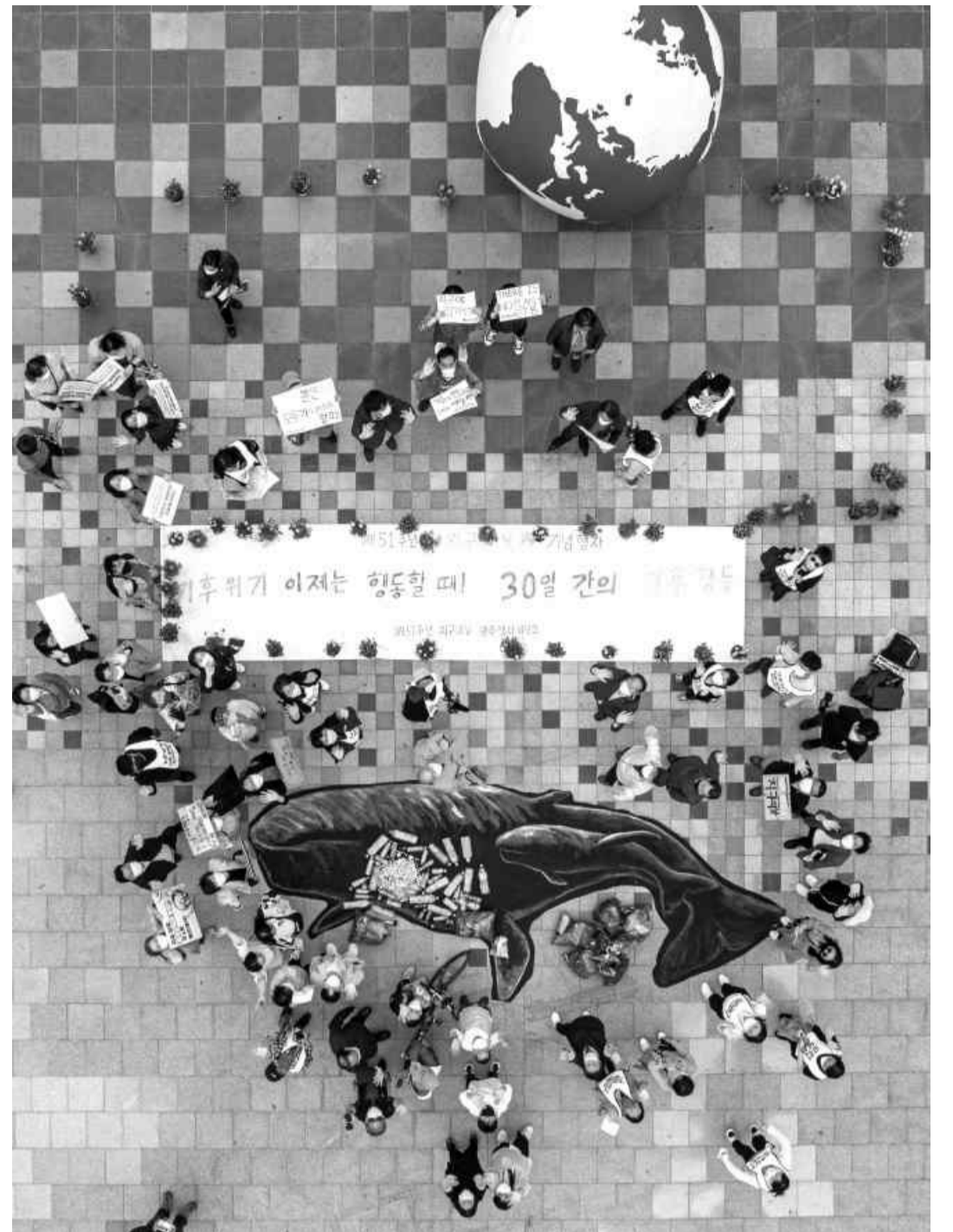
여기에 재활용 쓰레기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하루 평균 83.3 t이 배출됐던 재활용 쓰레기는 지난해 98.5 t으로 1년 간 18.24% 늘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행사위는 이날 수거한 담배꽂초를 따로 모아 환경부와 담배 판매 업체에 보낼 예정이다. 담배 필터가 분해되지 않고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업체의 자발적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행사위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일회용품·플라스틱 사용 자제 등 지구를 살릴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적극 안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후위기 극복 함께 해요” 제51주년 지구의 날 광주행사가 22일 오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행사 참가자들이 구시청과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을 고래 모양의 그림에 올려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폐목재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선고공판 연기

광주지법, 다음달 28일로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여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광주일보 3월 15일 6면)와 관련, 선고 재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2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23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기로 했지만 판결 전 추가로 검토할 사항 등을 들어 선고 기일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의 안

전 조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안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직원(27)이 파쇄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업체 대표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에 주목, 양형 배경 및 향후 법원의 선고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경안정제 탄 음료수 마시게 해 가게서 670만원 훔친 6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2일 피해자에게 약품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70대 피해자 B씨의 가게에서 B씨에게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B씨가 잠이 들자 현금, 귀금속 등 6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 병원비와 심리·법률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허위사실 게재 인터넷 신문, 위자료 1000만원 줘라’

온라인 상에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기사를 게재한 기자와 인터넷 언론사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윤명화 판사는 A씨가 인터넷 신문사와 기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명예를 훼손해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광주복지재단 대표로 있던 시기 지난해 1월 6일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에 게재된 ‘광주시 산하기관 공직기강 해이도 넘었다’는 기사와 관련,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사 속 허위사실을 뒷받침할 구제

적 증거가 없고 단순한 소문 이상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발언을 토대로 기사화한 점, 정정보도를 한 점을 들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인 A씨에게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등은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기사내용과 표현방식, 게재경위, 기사 영향력, 피해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